전위와 후위를 연결하는 동아줄

— 5·18광주 민중항쟁 당시의 선전·선동활동

◇대자보·플랭카드등이 주종이던 5·18광주 민중항쟁과 그 당시 산화한 영령들의 비석

I. 시작하며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 모든 신문·방송매체는 광주에 관한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화방송국과 KBS방송국이 불에 태워졌고, 라디오도 끊겼다. 전남월보와 전남매일의 편집이 중단되었고, 중앙지(어차피 왜곡·편파보도는 마찬가지였지만)도 광주시에 배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시민들은 의사전달을 어떻게 하였고, 광주의 언론은 누가, 어떻게 담당했었을까?

II.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시민군의 무장투쟁으로 광주는 해방구가 되었지만 투쟁을 계속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중의지의 통일이 무엇보다 요구되었고, 운동의 열기를 유지하려면 궐기대회의 개최와 선전선동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에따라 청년 운동권에서 궐기대회를 준비했다.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는 23일 오후3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도청앞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스스로 궐기대회를 가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1시 30분에 시작되었다. 15만명 정도의 시민이 운집하였으며, 문화선전조의 진행에 따라 항쟁 기간 중 산화한 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애국가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태에 대한 입장과 끝까지 싸워 자신들이 쟁취한 민주해방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시민들의 피해상황이 파악된 대로 보고되었다.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24일 오후2시30분에 10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도청내 수습위의 방해를 이겨내고 열렸다. 시민들은 책임자처벌과 피의 보상을 외치며 열변을 토했고, 수습위의 투항주의적 비판은 수습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 낭송되었고, 전두환의 허수아비 화형식이 거행되었다. 여고생이 '민주시'를 낭송하자 시민들이 각 구절마다 후창했다.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25일 오후3시에 각 동별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5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인원은 줄었지만 좀더 조직적이었고, 열기도 여전했다. '광주시민의 결의'가 채택되었고, 피해상황이 보고되었다.

대회도중 외곽지에서 온 주민들은 각동별로 한두명씩이라도 대학생이 파견되어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26일 오전10시경 수만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시민들은 계엄군이 시민군과의 협상을 배신하고 새벽에 농성동 부근으로 진입하려 했었던 사실에 대해 규탄했다.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이 낭독되었고,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행진 중 시민들은 "우리는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 "무기반납은 결사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항쟁이 전남지역으로 확대되자 대대적인 가두방송은 물론 피켓과 차체에 구호를 적는 활동이 많았다

III. 5.18민중항쟁에서의 선전선동활동

민중언론 투사회보

투사회보반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은 윤상원(5월27일 사망), 박용준(5월27일 사망)등 들불야학의 성원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활동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일:이날 시내에 나갔다가 계엄군에 쫓겨 학당으로 돌아온 이들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샜다.

19일:18일의 토론 결과대로 야학으로 썼던 방에서 오전11시부터 '민주시민 회보'라는 제호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내용은 18일 상황을 요약,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행동강령을 안내하는 것이었으며, 2000매 정도를 등사하여 주택가와 외곽에서 시내 중심가로 뿌려나가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21일: '민주시민 회보'를 '투사회보'로 개칭하고, 인쇄조, 물자조달조, 배포조의 3개조로 편성하였다. 1,2호를 10,000매 정도 제작하였고, 저녁9시부터 양면에 제작한 3,4호의 제작에 들어갔다. 배포조는 제작된 유인물을 시위차량에 전달하거나 군중들에게 배포하였고, 물자조달조는 충장로 및 상가의 지업사에서 종이를 사거나 때로는 즉석에서 기증을 받기도 했다.

22일:상황의 전반적인 흐름과 피해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투사회보 5호를 수만장 제작하였다.

23일:저녁에 투사회보 6호를 제작하였다.

24일:오전에 투사회보 7호를 제작하였다. 발행호수는 그대로 사용하고, 투쟁의식의 고취와 투쟁방향에 대한 제시라는 차원을 극복하고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투쟁 전위보다는 일반대중을 의식하여 제호만 '민주시민회'로 개칭하여 8,9호를 양면에 제작하였다.

내용은 주로 시민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전달되어야 할 홍보사항으로 궐기대회 홍보 및 대학생 집결처, 도청내의 진행상황 등이었다.

25일:장소를 YWCA로 옮겨서 10호 11호를 제작하였으며, 물자조달, 인쇄제작, 배포, 문안작성 외에도 취사조까지 총인원이 20명을 넘어 자그만한 신문사를 방불케하였으며, 제작매수도 1일 3-4만부를 능가하게 되었다.

제작기재도 고속등사기 2대등 차츰 대규모화 되어갔다. 궐기대회팀 및 대자보 작성, 부착, 가두방송 등에도 힘을 보조하여 도와주었으며 도청내의 취사업무까지도 일부담당하였다.

26일:12호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기타 궐기대회 결과 및 계엄군과의 협상 결과등을 홍보하는 홍보전단을 따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저녁부터 13호를 작성, 제작에 들어갔다.

전단·피켓등 다양한 매체로 현장 상황 알려

조직원의 헌신적 참여가 '투쟁의 촉매' 역할

문화패 '광대'의 활동

18-21일:18일 공수부대의 잔인한 만행을 목격하고 5.18의 폭거와 공수부대의 잔인한 만행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알리는 전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날을 새워 전단문구를 작성하고 등사하여 시내 곳곳에 살포하였다.

전단배포작업은 21일 절정에 달했는데, 특히 윤상원 등은 지프차를 구해타고, 계림동 인쇄소 등을 전전하며, 서방, 산수동, 동명동, 장동, 대의동 일대에 8절지 크기의 갱지 전단에 공수부대의 만행과 오후2시에 도청 앞으로 모이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부착하거나 살포하였다.

23일:오전10시반경 윤상원 등이 도청에 들어가 당시 학생 수습위원장 등을 만나 홍보임무를 자청하여 가두방송 및 전단의 제작·배포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2시 반경 대의동에 있는 녹두서점을 근거로 하여 모인 문화패와 김영철, 박용준 등의 야학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하였다. 대인시장에서 광목을 구입하고 계림동 제재소 등지에서 많은 각목을 얻어와 길이 5미터, 폭 60센티 정도의 크기에 "전시민은 총궐기하자", "계엄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등의 구호를 적은 20-30개의 플래카드와 16개 정도의 피켓을 만들어 도청 담장과 상무관벽 경찰서의 차고 등에 부착하였다.

YWCA에서 모임을 갖고 시민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여 전남대학교버스에 가두홍보용으로 부착되어 있던 마이크와 앰프를 떼내어 분수대에 설치하였다.

24일:YWCA간사들, 일부 대학생들과 같이 대자보를 작성하여 외국의 신문들과 함께 전일빌딩과 수산업협동조합건물의 벽 등에 부착하였다. 또한 YWCA에서 검은 리본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가슴에 부착하였다.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가 끝난 직후 50여명의 대학생들과 모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고 기획조, 궐기대회조, 가두방송조, 대자보조, 인쇄조등으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25일:가두방송조는 시내 곳곳을 돌면서 현재 상황과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인쇄조, 대자보조도 한 가지라도 더 알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활동

21일: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들을 보면서 구호가 쓰여진 피켓과 플래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원에 있는 스케치북과 여분의 종이를 수거하여 플래카드를 제작하였다. 50장 정도 만들었을때 종이가 바닥났다. 산수동 오거리에서 시위차량에 나눠주다 보니 금새 바닥이 났고, 이어 페인트를 구하여 차체에 구호를 써주었다.

22일: 그때까지 금남로를 중심으로 동구와 서구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회원들이 만나 자신들이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2개조로 나누어 활동하게 되었다.

한 조는, 페인트와 붓은 번거롭고 힘드므로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보도블럭 위나 전봇대 등에 구호를 적었다.

다른 한 조는 시장에서 광목 20필을 구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산수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던 시민군 산수동부대와 시민군 지원동부대에 전달하였다.

이들의 작업은 26일까지 계속된다.

IV. 정리하며

지금까지 논의된 것 이외에도 많은 선전선동 활동이 있었다. 전남대 '대학의 소리' 발행팀이 최초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비조직적, 혹은 산발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항쟁이 전남지방 전역으로 확대되면서부터는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래카드를 제작하거나 차체에 구호를 적는 활동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두방송 활동이 대대적이었고, 그 대표적인 경우로 전옥주(본명, 전춘심), 차명숙, 그리고 필자의 논문 '전남농촌의 5·18민중항쟁'('역사와 현장', 남풍, 1990)에 거론된 여고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완전한 수준의 정리가 아니다.

정리과정에서 민중문화연구회의 '5월과 문화항쟁'('민족현실과 지역운동', 도서출판 광주, 1985)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VII'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편의상 선전선동활동을 3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서술했지만, 해방구가 되면서부터는 활동의 분담차원이었을 뿐 조직이 거의 통합되었음을 밝히며, 투사회보 등의 자세한 내용은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심 인 택
〈현대사 사료연구소 연구원〉

뜨거운 가슴 의미심장한 미소

— 10주기 5·18 광주항쟁을 맞는 노트子의 지난모습

취재노트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 재치있는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취재노트.

'광주항쟁 10주기'를 맞은 노트子는 5월 광주에 관련된 주제로 본교에 게재된 바 있는 취재노트를 한데 모아 보았다. 〈편집자註〉

◇…그날만은 안된다나

'오늘만은 안돼'

학생들이 잡은 축전기간중 17일이 끼어 안됐다는 후문이 고황골에 무성.

결국 21일부터 시작키로된 모양인데 5월17일, 역사의 현실이 문제는 문제인 모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걱정도 팔자.

〈804호 84년5월14일자〉

◇…正道

4년전의 광주의 음성이 메아리치던날, 고황사자들은 울분을 터뜨렸소.

53명이 연행됐다는 소식도 들렸소.

진실로 무장한 경희인은 마음과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이오.

메가톤급 독향이 후각을 방해해도 경희는 正道를 걸었소.

억만근의 강판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들 응어리진, 한결같은 마음과 의지는 횃불처럼 활활 불타오르리.

〈805호 84년5월21자〉

◇…짐의 不德이…

오일육, 오일칠, 오일팔등 오일트리오가 전국의 상아탑을 순회공연하면서 낸 히트곡이 대성황을 이루자 일격을 당한 某某某 가수가 장안의 X 새를 모두 사들여 재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인데.

덕분에 그의 측근들은 불철주야 비상근무까지 감내해야 된다고. 이말 들은 한 獅형의 말이 매우 교훈, 고무, 철학적인데 말인즉 "다 나으리에게 덕이 없음이야"라나.

5共·6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식 보여

재치있는 표현으로 대중성 확보에 노력

〈833호 85년 5월20일字, 某某某는 전두환을 지칭〉

◇…목련축전

'목'숨걸고 외쳐대는 민주의 뜨거운 함성은 '련'행 되어가는 학우들의 뼈 아픈 고통이련만

'축'배만 들며 희희낙락 즐기는 학우들 가슴은 무슨 고통이 온지.

'전'체를 위한 당신의 희생은 진정 5월의 하늘을 끊어지 않는 민주의 피로 물들일게요.

〈860호 86년5월19일字〉

◇…때는 오월

지난주, 고황골에서는 獅형들이 'oi et Moi'라고 명명하여 자주 애용하던 某술집이 전경들에 의해 기습공격을 당했는데. 불시에 들이닥친 로마군단들, 獅형들을 몽땅 술집 밖으로 호출. 벽에 걸린 판화까지 유감없이 압수하더니 어깨 힘주며 한다는 말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오월의 노래따위를 부르고 야단이야?"라며 되레 호통이라.

여보슈 전경 나으리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월이외다.

〈862호 86년6월2일字〉

◇…뒤가 구릴테지

올해로 여덟번째 맞이하는 광주항쟁 기념이 또 나랏님네 심술로 무산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소식통이 발표.

5공화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련된(?) 정치를 해주시겠다던 남발공약은 어디로 가고 원천봉쇄가 웬말. 그러고보니 아직도 광주가 켕기긴한 모양이구려.

〈906호 88년 5월16일字〉

◇…갈테면 가봐!

요즈음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일고있는 전씨의 망명설에 전씨 나으리께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화살을 한몸에 받아.

물론 망명하고자 하시는 그대와 정부측 나으리들께서야 극구 부인하시겠지만 요모조모 안뜯어봐도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 속상하실테지.

나으리!5·18광주 영령과 국민들의 부릅뜬 두눈이 미국인들 못쫓아갈 줄아시오!

〈907호 88년5월30일字〉

◇…올챙이 많이 컸다.

5공화국 비리 관련자 조사가 요즘 유행이다며?

한데 대머리씨 처우문제를 놓고 제입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달라'는 우스개 소리를 해 주당님들 안주감이 됐다는데…

과거70년대말 전 윤某대통령을 몇번이나 피곤하게 하신 장본인께서 이제와 딴소리를 하니, 개구리 소시적 생각 못하는 군요.

〈909호 88년8월8일字〉

바톤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갈채도,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그에게 쏟아진다.
그렇다고 다 지휘자가 되기를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베토벤 심포니 9번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도, 트럼펫도, … 첼로도 있어야 한다.
30분을 카운터 뒤에있는 약방주인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하는 팀파니 주자도 있어야 한다.
그 뒷자리를 지키는 팀파니가 없다면
"환희의 송가"는 감동의 반을 잃어버린다.
눈여겨 보는 이 없어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해서.
사회도, 회사도 하나의 오케스트라.
한일그룹은 전체의 하모니를 위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韓一그룹
한일합섬, 국제상사, 경남모직, 동서석유화학, 부국증권, 하얏트 리젠시 — 제주, 하얏트리젠시 — 부산, 진해화학, 통도컨트리클럽, 한효개발, 한효건설, 연합물산, 한일레저개발, 한효재단

팀파니 奏者에게 갈채를—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두드러져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하여